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

이중환 | 한국복지협의회장 · 출판평론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장 즐겁게 하는 책은, 책을 말하는 책이다. 최근 이런 책이 두권 역간됐다. 《서가에 꽂힌 책》(지호)과 《책 그림책》(민음사)이다. 대형서점에서 이 책의 한권은 인문계열 신간코너에, 또 한권은 비소설 코너에 전시됐다. 한권은 일주일쯤 놓였다 밀려났고, 또 한권은 20일을 버텼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잘 전시된 셈이다. 그래서 아직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번역사산책》(공리)이라는 역서는 대형서점에서도 신간코너에 전시되지 못했다. 이 책은 외국어회화 교본이 있는 곳에 꽂혔다. 서점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도 이 책을 혼자서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리고 물론 곧 서점 구석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아직은 서가 어느 곳인가 남아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대형서점 이외에서 이 책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거의 전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모든 서점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거의 않았다'고 해도 그다지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출판산업의 지속과 그 미래는 '책 이야기책'들이 생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책 그 자체를 사

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책을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실어나르는 도구로 사람들이 인식할 때, 디지털 테크놀로지 매체와의 경쟁에서 책이 살아남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서울의 대형서점에서도 이미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문학 도서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서점 중앙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있다.

출판이 당면하고 있는 난관은 모든 책이 고르게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서와 순수문학 책들의 시장이 급격하고 명백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시장을 되살리는데는 포괄적인 출판산업의 진흥이라든가, 개별도서의 지원이라는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 또한 중요하다.

책의 생명을 더 유지하려 한다면, 책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결속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노력은 물론 즉물적으로 출판이나 출판사를 돕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즉물적인 접근을 아무리 키워도 애독자를 만들어내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책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한, 책은 효용과 기능의 시장에서 이제는 승부가 났다고 봐야 한다. 새 매체는 책을 목살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보다 훨씬 환상적인 방법으로 지식과 감성을 전달하고 팔 수 있다.

《출판저널》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매체가 돼야 한다. 책의 단순한 안내정보는 요즘 일간지들이 곧잘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신간안내가 광고 이상의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출판저널》의 역할은 새 경지를 찾을 것이다.

《출판저널》은 어제나 오늘이나 출판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보루임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책 만큼 아름답고 진지한 정신의 창조체가 어디 또 있는가.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ilj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